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이달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오일 운반선·차 연료장치 기술력 최고

김종복·이광민 광성조선 대표

특수용도 선박 건조

중소 조선업체 선도

“사업초기부터 다져온 탄탄한 기술력으로 국내외의 어려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계획입니다.”

오일 및 화학약품 중소형 운반선을 생산하는 광성조선(목포시 연산동·공동대표 김종복 이광민) 김종복(57) 대표는 “무엇보다 생산 관리체계를 조직적으로 정비, 최대한 건조기간을 줄여 선박을 인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120여명의 직원으로 출발한 광성조선은 2006년부터 선박건조에 돌입, 올해 10월 현재 17척의 중소형 선박을 수주해놓은 상태다. 지난 7월까지 8천급 오일 및 화학약품 운반선을 선주에게 인도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또 2척을 인도할 계획이다.

내년을 ‘제 2의 도약기’로 설정한 광성조선은 선박건조투수를 1만3천, 1만7천500급으로 늘려나간 뒤 특수목적 선박에 도전한다는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다.

김 대표는 “극시선 등 특수한 용도의 고부가가치 선박을 제작, 중소형 선박업체를 선도해나갈 계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공동 주최하는 '이달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이 30일 중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박춘근 광주·전남중기청장, 박상학 워너 대표, 나중신 광성조선 본부장,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

박상학 워너 대표

올 매출액 385억 목표

차 연료장치 기술력 최고

35건의 지적재산권을 등록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1998년 설립된 워너는 같은 해 일본 토요타 자동차 납품업체인 중앙정기과 기술 제휴를 통해 일본에 자동차용 프레스가스 저장용기를 수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05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기술혁신에 관한 경험과 힘을 축적한 워너는 르노삼성자동차에 전량 납품되고 있는 BOMBE(자동차용 가스연료 저장용기)를 개발했다. 또 이듬해 베트남 동나이에 페트로셋코 가스선리터 생산공장을 건설해바로써 국내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바 있다.

박 대표는 “기술투자는 기업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제품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7명의 직원을 보유한 워너의 매출은 2006년 280억원에서 2007년 225억원으로 주춤했다가 올해 385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워너(WINNER·곡성군 석곡면 연반리·대표 박상학)는 2005년 LPG 차량 신기술 연료시스템(액상직접분사방식)인 LPLI를 세계에서 처음 상용화한 강소(強小)기업으로 이름이 높다.

LPLI는 자동차 연비를 높이고, 저공해자동차(LEV)의 환경규제를 만족시키는 등 LPG 연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상학(51) 대표는 “전체 매출의 6%를 R&D(연구개발) 비용으로 투자해 특허 5건, 실용신안 4건, 의장 26건 등 이 시스템과 관련된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토지은행 농지매입 길 열렸다

정부 '국토 효율적 활용'... 농·산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 완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현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농지 및 산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절대 농지’, ‘절대 산지’로 묶여있는 땅 가운데 농업과 임업 등 생산이나 자연보전 차원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과감히 다른 용도로의 전환이나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토지은행 농지매입 허용>=정부가 30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농산지역 토지은행의 농지매입이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내년 7월 한국토지공사에 설치될 예정인 토지은행은 기업들에 산업용

지 등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땅을 미리 매입, 관리하는 기관으로 농지 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두고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만 농지를 매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농식품부는 농지법을 고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 ‘계획관리’ 지역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 토지은행의 사전매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른바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도 확대된다. 정부는 현재 진흥지역내 수질오염 등을 우려해 묶어둔 ‘보호구역’ 땅 12만ha 가운데 오영 가능성이 낮은 지역 6만5천

ha 정도를 풀어줄 방침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대로 경사율이 15%를 넘어 사실상 농사가 불가능한 ‘한계농지’의 경우 소유 및 거래 제한을 완전히 없애고, 농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도 신고만 거쳐도 농지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보전산지’ 10만ha 개발 가능한 ‘준보전 산지’로=산지 가운데서도 손대기 어려운 ‘보전 산지’의 일부가 개발이 쉬운 ‘준보전 산지’로 전환된다. 조사·평가작업을 거쳐 1만m 이하의 산 등의 용도를 바꿔주면 이용 가능한 준보전 산지 총 면적이 현재 약 145만ha에서 155만ha로 10만ha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가환금 신청 하세요” 김기주(오른쪽)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9일 광주시 광천버스터미널에서 행인들을 대상으로 ‘유가환금제도’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대한통운 3천73억에 금호렌터카 인수

대한통운(대표 이국동)이 렌터카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금호렌터카를 인수할 수도 형태로 3천73억 원에 인수한다.

이를 위해 대한통운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렌터카의 렌터카사업부문을 양수를 최종 결의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올해초 대한통운 인수 이후 업계 1위인 금호렌터카와 업계 3위인 대한통운 렌터카사업부 등 2개의 렌터카 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지역 휘발유 ㄹ 당 1,500원대 ‘눈앞’ 주택보증, 미분양 주택 5천억여치 매입

광주·전남지역 9개 지자체의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의 평균가격이 ㄹ 당 1천500원대로 떨어지는데 이어 대부분의 주유소들도 다음 주중 1천500원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30일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국제 유가와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하락추세에 맞춰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휘발유가격이 ㄹ 당 1천700원대에 달했던 점과 비교해보면 큰 폭의

가격 하락인 셈이다.

광주에서는 광주·남·서구 등 3개 자치구, 전남에서는 6개 시·군 주유소들이 1천500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환율 등 돌발변수가 없는 한 다음 주중에는 대다수 주유소들의 휘발유 가격이 ㄹ 당 1천500원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ㄹ 당 평균 경유 가격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1천482.2원,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1천503.2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대한주택보증은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1차분 5천억원여치를 이달 31일부터 매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 주택이다.

매입을 원하는 건설회사 등 사업주체는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신청서류를 준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 되고 한 업체당 매입 상한액이 500억원을 넘을 수 없다.

매입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뉘 진행하며 예비심사에서는 예비심사 평점표를 기준으로 분양가 할인율과 공정률, 분양률 등을 평가해 고득점 순서대로 본심사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 본심사에서는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를 거친 뒤 매입가격의 적정성과 신청대상 사업장의 완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매입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입주금, 미분양주택 매입대금 등 사업장과 관련한 수입금은 신청인과 대한주택보증이 공동관리해 공사비로만 활용된다.

/연합뉴스

“다음달 기업 경기 극히 부진”

전경련 600대 기업 조사... 중소기업체 가동률 1.6%P ↓

11월 기업경기는 10월보다 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600대 기업(응답 544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D)는 63.7로 나타나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30일 밝혔다.

600대 기업들이 11월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글로벌 금융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관련 중소기업의 평균가동률이 4개월째 60%대에 머물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체 1천411개사의 9월 중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포인트 떨어진 69.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동률은 6월 70%대가 무너진 이후 4개월 연속 60%대에 머물며 조업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실수록 가벼워지는 수소수!
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자!
수소 성분 물 특유의 노폐물 제거 및 50% 활성 산소 제거 효과

세계 최수준의 미분양 주택의 수소수

수소수 19,500 원

가격이 맞는 날까지 주·육 계속 됩니다

서울핀경키베레나이트

(대인동 롯데백화점 뒤/예약: 062-226-9334)

실종된 애인을 찾습니다!
30,40,50부킹몰!
가격이 맞는 날까지 주·육 계속 됩니다

서울핀경키베레나이트

(대인동 롯데백화점 뒤/예약: 062-226-9334)